

순천하늘빛축제, 자가발전기로 밝힌다

전력난 속 전기 과다 사용 문제 제기에 변경

8일 개최... 점등시간도 1시간 줄여 2시간만

순천시는 8일 개최 예정인 '순천하늘빛축제'에 전기가 아닌 자가발전기를 통해 전구들을 점등하기로 했다. 또 점등 시간도 1시간 줄였다.

시는 6일 "애초 전기를 사용하기로 했으나 정부의 전력수급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자가발전기를 사용하고, 점등시간도 오후 8시부터 밤 11시에서 밤 10시까지로 단축했다"고 밝

혔다.

축제시간이 전력사용 최대피크 시간대가 아니고, 일반전구의 1/10정도 밖에 소비되지 않는 친환경적인 LED 조명을 사용하는 등 전력난과 큰 관계가 없지만 일부에서 전력난 속 전기 과다 사용에 문제를 제기하자 방침을 변경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료를 놓고 보

면 한 달에 90만원 정도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나 시기적으로 볼 때 일부 우려가 있어 이 같이 결정했다"며 "깊어가는 여름밤 다양한 가족과 이웃과 함께 동천 웰빙로와 장대공원을 산책하면서 다양하고 환상적인 빛의 세계를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하늘빛축제'는 순천시가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 도심권 불거리를 제공해 정원박람회를 방문하는 외지 방문객을 시내로 유입할 목적으로 올해 처음 열린다.

오는 8일부터 10월27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며, 소망배우기, 클레이

아트, 문화공연, 3D프로젝션맵핑 등 평일, 주말, 계절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한편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하절기 전력수급 위기설과 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생태수도 순천에서 빛 축제를 개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축제 개최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전선으로 나무를 감고, 야간에 화려하게 불을 밝히는 것은 대한민국 생태수도라는 도시 이미지에 걸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보성 보훈회관 기공식'

보성군이 지난 4일 보성을 주봉리 보훈회관 신축부지에서 정중해 군수를 비롯해 군의회 의원, 보훈단체장,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역주민, 수탁법인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회관 기공식을 가졌다. 기초 지자체 가운데 보훈회관 설립에 나선 곳은 보성군이 최초로, 국비 5억원 등 모두 17억원이 투입돼 올해 말 완공될 예정이다.

/보성=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여수교육청 영어콘테스트 열기

우수학생에 해외문화체험 연수 기회 제공

전남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규)은 5일 "지난 1일 여수 문수중학교에서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영어 흥미유발과 말하기 능력을 키우기 위한 제4회 영어콘테스트를 여수시와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 조기 발굴 등을 목표로 한 이번 대회는 도시지역과 농·산·어촌을 A·B그룹으로 나눠 실시됐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테스트는 125명의 학생들이 출전해 읽기능력평가와 개인 인

터뷰, 그룹 미팅 등의 시험을 거쳐며 그 열기를 더했다.

대회 결과 초·중학생 24명은 교육장 표창, 고등학생 6명은 여수시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으며, 성적 우수 학생 10명에게는 '겨울방학 해외 문화 체험 연수' 기회가 제공됐다.

김종규 여수교육장은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대회가 지역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키우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주민자치회 시범지역' 순천시 중앙동 선정

순천시는 6일 "안전행정부가 지난달 7일 전국 348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을 공모한 결과 순천시 중앙동이 주민자치 시범지역 31곳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중앙동은 국비 1억원을 받아 1년간 '날아라 주민자치! 천태만상(千態萬象) 중앙동'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순천시 중앙동은 상인과 주민이 동거동락하며 '천태만상 마을축제', '천태만상 합창단', '중앙동 한평정원' 등 다양한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다음달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고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매실 직접 따올게... 엄마는 광양매화마을로

광양시매실연구회 8일부터 직거래장터

봄의 정령 광양매화가 피기 시작한 지 100일이 지나면서 광양지역 매실 농가들이 매실 수확에 한창이다. (사진) 이에 따라 광양시매실연구회는 광양시의 지원을 받아 매화마을 일원에서 8일부터 이틀간 '광양매실 직거래장터'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매실따기 및 장아찌 담그기 체험, 매실품평회, 생매실 및 가공제품 전시관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광양매실은 맛과 향이 뛰어나고, 구연산과 사과산 함량이 풍부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피로회복에 으뜸인 과실로 한의원에서 약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매실 속의 신맛은 소화불량과 위장장애, 해독작용에 살균효과까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저온 현상으로 중부 이북지방에 매실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의 매실가격은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어 소비자가 행사장에 오면 유통단계에 드는 비용을 제외한

저렴한 가격으로 매실을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광양매실의 기능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매실가공식품과 맛깔스런 매실 요리로 주식류, 반찬류, 간식류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또 매실농가의 소득증대와 매실산업의 발전을 위해 구례군과 광역클러스터를 구성된 빛그린매실사업단이 2014년부터 5년간 국비 30억원, 지방비 30억원, 자부담 6억원 등 모두 66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광양=박영민기자 pyj4079@

향 673건을 접수하고 이 가운데 600건은 자체 처리했다. 나머지 73건은 추진 중이거나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관련 부서로 이첩해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다.

박병중 군수는 "탁상행정을 탈피, 한발 빠른 현장행정으로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지훈기자 gjju@

고흥, 한발 빠른 현장행정 '생생 견문보고제' 효과 특출

고흥군이 시행하고 있는 '생생 견문보고제'가 큰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생생 견문보고제는 군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공무원들이 출장이나 출·퇴근 등 일상생활에서 보고 들은 민원 사항을 군민

들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찾아 개선하는 제도다.

5일 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 말까지 5개월간 이 제도를 운영한 결과 환경, 상하수도, 도로·교통, 보건·위생 등 주로 생활과 직결된 민원사

항 673건을 접수하고 이 가운데 600건은 자체 처리했다. 나머지 73건은 추진 중이거나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관련 부서로 이첩해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다.

박병중 군수는 "탁상행정을 탈피, 한발 빠른 현장행정으로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지훈기자 gjju@

전북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순창군 기동포획단 운영

순창군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월 중순까지 기동포획단을 운영한다.

모범 수렵인 21명으로 구성된 기동포획단은 멧돼지, 고라니, 멧비둘기 등 7종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신고되면 직접 출동해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퇴치한다.

군은 지난해도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146차례 출동으로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 420여마리를 포획,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때는 군청 산림공원과나 해당 읍면 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고창 농어촌 뉴타운사업 비리 '일록'

하도급 선정과정서 공무원 수천만원 뇌물받아

고질적 관행 여전... 검찰, 건설업자 등 구속기소

고창군 농어촌 뉴타운사업 관련 공무원이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무원은 시공사의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뒤 하도급업체부터 돈을 받고, 하도급업체는 공사대금을 받고, 하도급업체는 공사대금을 통해 시공사에 전달하는 부패구조도 적발됐다.

특히 감독공무원이 군수와 친분이 있는 건설업자의 공갈행위를 방치하고,

시공사는 비자금으로 공무원, 감리, 군수측근 등에게 공사권의 제공을 부탁하며 금품을 건네기도 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최근 농어촌 뉴타운을 조성과정에서 건설업자들로부터 6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약수 받고 이를 수수한 혐의로 고창군청 공무원 A(49)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장부의 자금 2억4000만원을 조성해 빼돌린 혐의로 등으로 건설업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 가운데 업자인 B(41)씨는 군수와 친분이 과시하며 시공사로부터 7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시공사로부터 266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전 농어촌공사 감리직원 C(42)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특히 이번 수사를 통해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인 하도급 비리에 경종을 울렸다는 입장이다. 관공사의 시공사 선정은 조달청 공개입찰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시공사가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때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 감독공무원이 친분이 있는 하도급업체를 시

공사에 알선해 주고 금품을 수수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하도급 건설업자가 감독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도 억울하게 부도처리 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창군이 사업비 332억원을 들여 고창을 월곡리에 조성한 뉴타운사업은 지난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의 귀농활성화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됐으며, 현재 입주인들이 허위광고 등을 이유로 고창군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감사원에 감사청원을 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천년의 숨씨 부안노을감자'
3개월간 108억원 농가소득

부안군은 5일 "올해 251ha의 비닐 하우스 2500여동에서 6016t의 노을감자를 생산, 108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렸다"고 밝혔다.

부안에서 생산되는 감자는 지난 3월에서 지난달까지 '천년의 숨씨 부안노을감자'라는 브랜드를 내걸고 구경화원 고급포장재를 사용, 국내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음식점 등에 납품됐다. 특히 그동안 개별 농협을 통해 서울 가락동, 광주, 대전 등지에 판매했으나 올해부터 부안천년의숨씨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출하해 안정적인 판매망을 갖췄다. 또 감자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감자를 시설후하우스 외에 봄, 가을 노지에서 150ha를 재배해 소비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부안=정재용기자 jjy0681@



지리산 천년송 혈통 이어간다

남원시-산림과학원, 꽃가루 채취 저장

남원시와 국립산림과학원은 천연기념물 지리산 천년송의 꽃가루(화분)를 채취해 저장하는 방법으로 천년송의 유망 유전자(Gene)의 혈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지리산 천년송은 임진왜란 이전부터 와운마을 뒷산에 자생해 왔다고 알려져 있으며, 매년 음력 1월10일이면 마을 주민들이 당산제를 지내고 있다.

우산을 펼쳐 놓은 듯한 수형이 아름다우며 와운마을과 관련된 전설 등 노거목의 희귀성과 민속적 가치가 커 지난 2000년 천연기념물 제424호로 지정됐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단신

정읍야산병원, 보호관찰청소년 12명 무료 건강검진

야산재단 정읍야산병원은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와 공동으로 5일 보호관찰청소년 12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무료건강검진은 정읍야산병원과 정읍보호관찰소가 지난 2011년 4월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음주, 흡연, 유해약물 흡

입 등으로 인한 일탈 및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읍야산병원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20여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장·체지방 측정 등 일반건강상태 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X-Ray, 일반내과 진찰 및 상담 등을 해오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순창군, 다문화가정 276가구 국제우편요금 지원

순창군이 관내 다문화가정 276가구의 국제우편요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5일 "올해 1250만원의 군비를 확보, 각 가정별로 희망시기를 선택해 1곳당 5만원의 우편요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와 관련 5일 순창군수실에

서 순창우체국, 순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국제우편요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순창군에서는 1가정당 5만원을 지원하고, 우체국에서는 7%의 요금할인과 국제우편상자 및 1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남원시, 힐링·커뮤니케이션 역량강화 직원 교육

남원시는 5일 "지난 4일 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힐링·커뮤니케이션 역량강화 교육을 한국폴리텍대학 남원연수원에서 모두 끝냈다"고 밝혔다.

'행복한 공무원이 행복한 남원시를 만든다'는 주제로 실시된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은 힐링을 통해 일상

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동료 간의 화합과 소통을 다졌다. 한 달 동안 모두 8차례 진행된 이번 교육은 상황극을 통해 조직 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본질을 통찰하고 감정조절을 통해 배려하고 소통하는 자기관리법 등을 위주로 실시됐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부안보건소, 치매 예방 '뇌 건강 걷기대회 캠페인'

부안군보건소는 지난 4일 치매 예방 및 조기발견의 중요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지역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뇌 건강 걷기대회 캠페인'을 벌였다.

이 행사는 부안군 통합체육회와 전북치매관리센터가 공동 주최했으며, 생활체육 동호회 회원 100여명과 정

신보건센터 회원 10명이 참여했다. 캠페인은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상설시장과 터미널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약 2km를 걸으면서 '건강생활 실천으로 치매예방', '금연', '절주', '고혈압·당뇨 예방' 등을 외치며 참여를 촉구했다.

/부안=정재용기자 jjy0681@